

생활과학의 통합성과 실천성 - 과제와 대안

Proposing Missions and Alternatives for Integrity and Practicality of Human Ecology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강 사 김 유 경**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 혜 림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Lee, Kiyoung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Kim, Yookyung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Song, Hyerim

〈목 차〉

I. 서론

II. 생활과학의 통합성 논의

III. 생활과학의 실천성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stablish the standing of Human Ecology by discussing the integrity and practicality of Human Ecology and viewing it from various angles.

We dealt with objects of study, viewpoints, and the adoption of research results in discussing the integrity of Human Ecology. We also discussed the practicality of Human Ecology focusing on family welfare, health and policy.

This study revealed that integrity and practicality were closely connected and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identification of Human Ecology.

* 주저자: 이기영 (leek@snu.ac.kr)

** 교신저자: 김유경 (yk_kim1@hanmail.net)

Key Words : 생활과학(Human Ecology), 통합성(integrity), 실천성(practicality)

I. 서론

‘생활과학’이 가사과, 가정과, 가정대학 및 생활과학대학으로 진행되어 온 학문분야의 변화과정을 보면 학과 혹은 대학의 명칭에 따라 부각되는 강조점은 단계적으로 차이를 보여 왔다. 초창기에는 가사과 가정과 명칭과 함께 빈곤퇴치와 생활개선, 1960년대 이후는 가정대학 중심으로 전공의 세분화와 더불어 생활의 과학화, 관련 전문인들의 양성, 1980년 이후 인간생태학의 도입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시대적 변화와 학문적 요구에 따라 생활과학의 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이경희, 2000:15-16; 문숙재, 1999:16). 최근 들어서는 광의의 가정관리학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어 실천적 차원에서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생활과학 연구자들이 갖는 정책에 대한 관심은 통합성과 실천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학문에 대한 전공생 및 사회의 요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등에 부단히 적응하며 통합성과 실천성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대응전략을 구분할 때, 첫째, 전문화·세분화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학과명칭 변경과 전공생의 취업 증진, 둘째, 복지적 관점의 도입과 적용, 즉 가정복지의 재개념화와 활성화 그리고 셋째, 정책(제도, 법, 전달체계 등) 연구의 활성화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송혜림, 2008a).

생활과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분야로의 위상을 계속 정립하기 위해서, 이 통합성과 실천성은 여전히 관련 연구자들이 풀어야 할 해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그동안의 전문화·세분

화의 과정이 생활과학 내부 전공영역들의 연계를 취약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인접학문과의 유사성을 강화하고 있거나 않은지의 우려와 함께(송혜림, 2007 재인용; 노영주 외, 1999) 부각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선행연구(송혜림, 2007)에서는 실천성 강화의 한 방향으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의 구체화와 가시화, 전달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 양성 및 배출 그리고 정책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가정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생활과학에서 규정한 가정정책 자체가 통합성을 갖고 있으며, 가정정책은 개인 혹은 가정생활의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 기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학문 간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학문분야에도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이 때, 생활과학 역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융합과 통합이 부각되는 맥락은 바야흐로 생활과학이 통합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여도를 보다 가시적으로 표명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생활과학의 연구가 세부전공분야의 심화된 발전과 동시에 분야 간 협력과 융합화를 통해 통합성을 담보하면서(유영주 외, 1999)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성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학문분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통합성과 실천성의 논의를 보다 심도 깊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통합성과 실천성 논의를 통해 생활과학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학문으로 보다 견고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생활과학의 통합성 논의를 검토하되 이를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패러다임 그리고 연구결과의 적용과 같은 개념들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천성의 차원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정복지와 건강가정, 가정정책 주제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생활과학의 통합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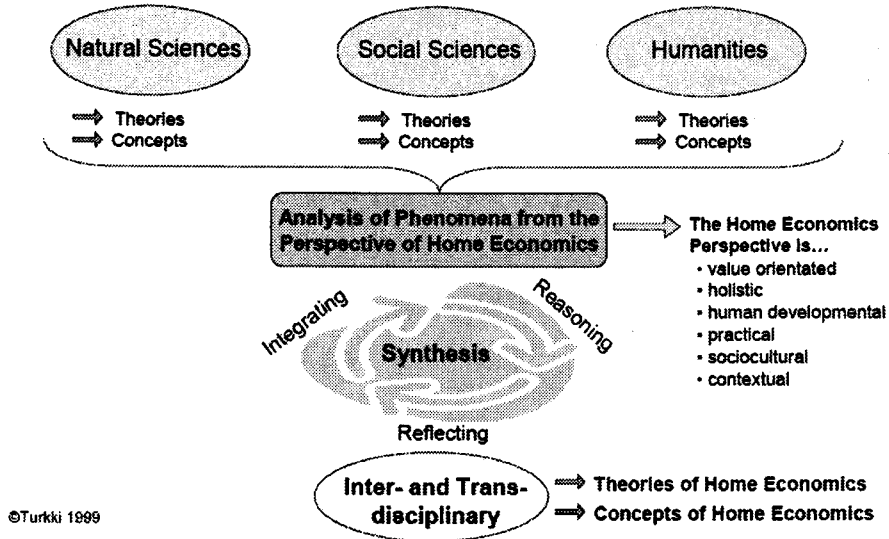
상술한 바, 통합성은 생활과학의 정체성 정립과 함께 독자성, 즉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과학 내부적인 성찰적 논의 과정에서, 우리 가정학은 “unified field”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collection of specializations”에 유사하여,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즉 다른 학문연구에서 노동분담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 수행과정을 전문성에 따라 분담하는데, 결국 분담된 과업 수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학의 경쟁력, 독자성은 통합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유태명, 1996:6). 이는 우리 가정학, 생활과학이 취업과 관련된 전문인의 양성을 중심으로 전문화, 세분화에 주력하고자 한 과정에서 간과한 점을 분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지속 가능한 생활과학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즉 전문성을 유지하되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이다(송혜림, 2007).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활환경과 패러다임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성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통합성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관점, 패러다임, 그리고 연구결과의 적용이라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생활과학의 핵심적인 연구주체인 동시에 대상인 가정,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의 통합성에 대한 논의에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Turkki는 가정학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면서 가정학의 대상을 가족과 가정의 일상생활(everyday life)로 보았다(Vincenti & Turkki, 2008). 가족과 가정 내의 일상생활은 의생활, 식생활, 주거 및 돌봄을 포함하며,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인간행위가 생활과학의 연구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가정학의 재개념화를 논의한 노영주 등의 연구(1999)에서도 가정생활을 가정학의 학문적 전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연구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을 일상적 활동의 총체로 규정하면서, 가정학이 그동안의 파편적, 소재 중심의 연구를 지양하고 가정생활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일상세계로서의 가정생활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학의 연구대상이 궁극적으로 ‘가정’이라는 합의는 있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지나친 세분화, 전문화 경향으로 인한 연구대상의 모호성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을 구심점으로 하는 하나의 학문영역으로서의 통일성 회복을 제안하고 있는데(김항아 외, 1995:4), 바로 이 통일성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통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정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대상으로서 가정생활을 포착한

〈그림 1〉 생활과학의 다학제적 성격



출처: Turkki, K.(2007).

연구도 있다(공인숙 외, 1996: 24). 이 연구에서는 가정학의 연구대상으로서 가정생활을 강조함으로써 가정학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특히 가정생활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제안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차원에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과학의 통합성 논의는 자연스럽게 연구방법과 관점으로 연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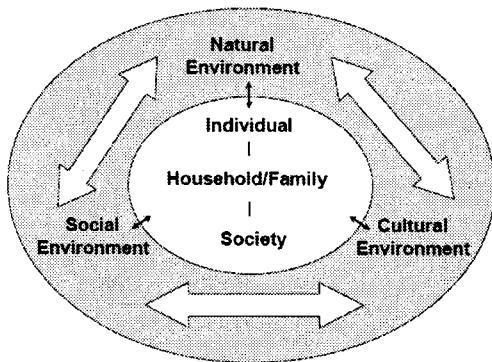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방법과 관점의 측면에서 통합성에 접근할 때, 가정학 및 생활과학에서는 초기부터 인간생태학을 적용하여 생활과학의 통합성에 접근하고 분석하는 시도를 해 왔다. 강혜원(1980)은 가정학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인간생태학은 물리적, 생물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 등과 상호작용하는 체계로서의 가정을 강조하였으며, 이정연(1994)의 경우 체계의 전체성 안에서 가족현상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틀로 인간생태학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Turkk 역시 일상생활의 총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자원관리와 인간생태학 이론을 중시하고 있는데(Vincenti & Turkki, 2008), 이 두 이론은 환경과 전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 두 이론은 체계적인 전체를 근간으로 하면서 가정과 사회, 인간행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과 패러다임을 Turkki(2007)는 다양한 모형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생활과학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내용과 지향성, 방법론을 통합하는 모형으로 도출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 그림은 생활과학의 과학적 기초에 관한 모형으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이론과 개념에 근거하고 추론, 통합, 반성의 방법을 종합하여 생활과학이 갖는 학제적, 통섭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과학이 갖는 다학제적 성격은 곧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융합과 통섭의 시가

을 생활과학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생활과학에서 주된 연구관점으로 채택해 온 인간생태학적 틀로 접근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개인, 가정/가족, 사회가 중심이 되면서 자연환경, 사회 환경, 문화환경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생활과학 패러다임의 통합적 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인간생태학은 가정 현상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사고의 틀이며(윤종희, 1991), 포괄성의 차원에서 가정학의 지배적 이론틀 역할을 할 수 있다(이정연, 1994).

〈그림 2〉 생활과학과 인간생태학적 연구틀



출처: Turkki, K.(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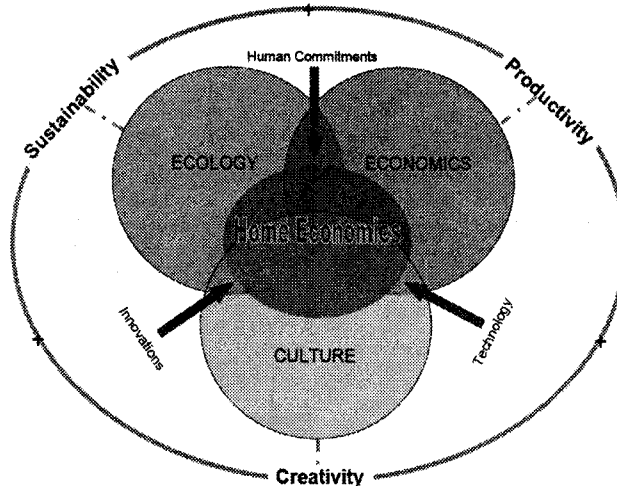
그런데 인간생태학이라는 거대이론이 가정학 연구에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연구도 있다. 공인숙 외(1996)는 포괄성과 총체성을 구별하면서, 분리된 개념을 단순히 하나로 모아놓는 포괄성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간의 상호관계의 복잡성, 의미의 중층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총체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생태학이 가정학의 여러 분야를 끌어안고 유지하는 데 적용되어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항아 외(1995)의 연구 역시, 인간생태학적 관점이 갖는 통합적 시각의 유용성은 있으

나, 가정학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강조로 인하여 학문분야의 세분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로써 가정이 중요한 연구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연구대상의 모호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 인간생태학 이론들의 유용성을 재검토하고, 생활과학의 다양한 하위분야들이 상호간에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생활의 의미를 창출해 내고, 예컨대 가정복지 혹은 건강가정, 삶의 질과 같은 공통의 지향성 및 관점으로 회귀됨으로써 부분의 합을 통해 더 큰 전체를 창출하는 통합성의 장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태명(1996)은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통해 학제간 통합을 모색하되, 이 경우 현재의 가정학보다 훨씬 방대해 지므로 교육과 연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정학의 고유성을 강조하였다. 김항아 외(1995) 역시 가정학의 각 영역이 공통성을 가지고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대안으로 가정철학, 가정학 원론과 같은 기초적인 과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연구결과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생활과학의 통합성을 강조할 때,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에 대한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생활과학에서 주목하는 바, 미래의 사회는 경제적 인간형이 아닌 돌봄과 회복을 통해 포용과 소통의 원리를 주도하는 인간형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인적 자본의 형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의 유지와 보호를 과제로 삼는 행동(v.Schweitzer, 1991) 그리고 건강한 생활양식,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사회적 책임, 문화적 다양성의 조합(Turkki, 2007)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활과학이 갖는 생태적 사고, 자원에 대한 철학,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등은 ‘좋은 생활’이라는 결과로 표출될 수 있

〈그림 3〉 연구결과의 측면에서 생활과학의 통합성: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



출처: Turkki, K.(2007)

을 것이다. 가정에서 체득한 협동과 이타성, 약자에 대한 보호, 자발적 돌봄의 정도로 그 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수준과 삶의 질 그리고 성숙함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경험과 함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술,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도덕감 등 생애 초기부터 가정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가치들이 사회로 확산됨은 (송혜림, 2008b) 생활과학의 연구가 ‘좋은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 그림은, 생활과학의 생태학적 사고, 자원의 한계 라는 조건 속에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학적 사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간적 관계, 혁신, 기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성, 지속가능성, 창조성을 창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술한 모델들은 모두 생활과학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틀과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활과학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여러 기초학문의 토대 위에서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족과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 총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이기영, 2008).

정보화·세계화 시대 생활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한 선행연구(이기춘 외, 1999)에서도 생활과학의 방법론으로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학제간 통합된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과학의 통합성은 연구대상, 연구의 관점 뿐 아니라 연구결과와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활과학이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연구관점에 따라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정철학, 생활문화, 생활양식, 생활표준, 삶의 질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생활과학 연구자들이 실천성 강화의 차원에서 ‘현장’에 보다 주목하게 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프

로그래밍과 서비스의 개발, 정책적 대안 등의 연구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반면에 가정철학이나 생활양식, 생활문화, 생활표준 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생활세계와 사회체제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이 시점에(송혜림, 2007), 가정과 일상적 삶의 영역을 전담 연구주제로 삼아온 생활과학은 일상을 회복시키는 학문으로 성숙해 가야 하며(조혜정, 2006) 따라서 생활과학의 연구대상인 '가정'에 주목하여 보다 근본적인 성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거대해진 거시체계와 사회경제적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해 진 가정의 균형과 조화, 협력, 연대 그리고 공사의 분리 해체와 재구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바(공인숙 외, 1996), 이제 노동과 여가·생산과 재생산의 균형, 삶의 질을 추구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돌봄의 가치, 이를 제공하는 가정의 의미 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III. 생활과학의 실천성 논의

통합성과 함께 생활과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실천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실천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가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 연구에서 가정학이 사용하는 '실천'의 의미를 규정해 왔는데, 기술적 측면, 생활의 수단으로 표현되는 기능이 기술을 설명하는 것, 기초과학의 원리를 현실생활의 향상을 위해 구체화하고 실용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유영주 외, 1996 재인용).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실천성

의 한 요소를 연구결과의 사회화와 연계시켜 한 편으로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보와 조언 그리고 교육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과 기업 활동에의 반영을 위한 노력으로 실천성의 요소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생활의 만족, 생활의 질 향상을 생활과학의 이념적 목표로 삼아 왔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을 '연구'만 하였지 그 연구결과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는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노영주 외, 1999). 마찬가지로 유영주 외(1996)의 연구에서도 당초 가정학이 천명했던 실천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의 향상과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는가, 나아가 국가정책과 기업활동에 가정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실천성의 중요한 요소는 연구결과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학문적 목표로 꾸준히 강조해 온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의 경험적 현상으로부터 이론을 구성하고 다시 그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가정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이다(문숙재, 1999).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현재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인재배출'을 또 하나의 실천성 요소로 부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기춘 외, 1999). 그러므로 생활과학의 전문직업인 양성의 목표(문숙재, 1999)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실천성의 한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또다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

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란 과제와 맞물리게 된다. 따라서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문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직종개발과 저변작업이 요구된다(유태명, 1996).

이상과 같이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면, 미시적 차원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며, 이를 위해 전공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을 확보하고, 나아가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 기업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이 모든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상술한 ‘통합성 논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노력이 세부전공의 부각, 전문화, 취업현장 개발 등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생활과학의 통합성을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천적 학문으로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가가 분명해져야 하며,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연구의 결과물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분야의 분업화, 전문화, 세분화가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다른 학문분야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현장’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통합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실천성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도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송혜림, 2007). 따라서 단순한 현장의 개발, 인력의 양성과 배출, 구체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안 등을 통해 실천성을 주장하기보다, 가정학 및 생활과학이 어떻게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실천성을 부각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 바, 아래에서는 ‘가정복지’와 ‘건강가정’ 그리고 ‘가정정책’과 연계시키고자 한

다. 그 이유는 가정복지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천성, 서비스를 통한 구체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인력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 등을 모두 함축하며, 복지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정책의 경우 국가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를 가능케 하는 촉진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은 생활과학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연구분야들이 개별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정복지’와 관련되어 가정학이나 생활과학은 가정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학문(문숙재, 1999:15; 이영세·김양희, 1997:186)으로서,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극대화(윤숙현·이미정, 2006:91),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활양식을 탐구하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이기춘·박정희·권훈정·김난도, 1999:11), 개인 및 가정의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지향(문숙재, 1999:15),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 1999:175), 가정복지(이정연, 1995:1) 등의 목표와 지향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복지사회를 주도하는 핵심적 학문분야로 위상을 정립할 가능성을 그 어떤 학문분야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이상 송혜림, 2007 재인용). 특히 문숙재(1999)는 가정복지를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사회적으로 지원받는 체계적 활동으로 정의할 때 생활과학과 가정복지의 관계가 더욱 명백히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가정복지를 예방적, 조정적, 치료적 기능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협소한 차원에서의 복지(welfare)와 구별하고 있으며, 가정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생활과학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질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복지를 추구하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현 시점에, 가정복지는 가정복지서비스, 가정복지전문인력, 가정복지실천현장 그리고 나아가 가정복지 관련 정책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적 관점의 도입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적 향상 및 포괄적·보편적·예방적 복지(wellbeing)를 강조함으로써 생활과학이 복지사회에 대한 요구,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의 요구로 이어지는 사회정책 논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송혜림, 2008a).

생활과학은 그 초기부터 개인, 가족, 사회의 복지증진을 학문적 목표로 강조해 왔는데, 이때의 복지는 제도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복지이며, welfare가 아니라 wellbeing에 대한 추구이다. 이는 생활양식이며 하나의 문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송혜림, 2005). 그래서 결국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회귀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활과학에서 연구해 오던 ‘가정복지’가 타학문분야와의 경계 및 정체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준의 혼란과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건강가정’으로 재구성된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복지와 건강은 서로 다르지 않은 개념이며 동일한 용어로 자주 쓰이는데¹⁾, 특히 최근 들어 하나의 사회문화적 코드로까지 자리매김되고 있는 ‘웰

빙’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웰빙이나 건강으로 대체될 수 있는 ‘복지’의 개념은 기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방식의 협소한 복지(welfare)를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 개념이며 훨씬 적극적 개념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정학, 생활과학에서는 가정복지를 표현할 때 welfare가 아닌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최근까지 복지라는 개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정학에서 규정한 건강은 이미 그 안에 평화, 안전, 폭력 없음, 평등, 복지,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희금 외, 2005; 이기영, 2004; 송혜림, 2004;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추진위원회, 2003), 사회적·환경적 건강과 동시에 이를 가정생활에 적용하면서 평등, 평화, 복지, 나눔, 참여, 자율성, 주체성, 균형성 등으로 재해석되는데 (조희금 외, 2005; 이기영 2004; 송혜림 2004),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건강의 개념은 협소한 복지를 뛰어넘는 보편적이고도 일상적 복지의 개념으로서 가정학, 생활과학 연구의 독특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 송혜림, 2005 재인용). 특히 ‘건강가정’과 관련되어 생활과학 연구자들은 이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건강가정사 양성과 배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그리고 건강가정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 일련의 실천과정을 주도해 오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은 그동안 생활과학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던 학문적 주제에서 이제는 실천적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건강가정은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유용한 개

1) 만인을 위한 건강(1977), 알마타 선언(1978), 오타와 헌장(1986) 등에 나타나 있는 건강의 개념을 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한 안녕상태(wellbeing)이며 (조무성, 2005: 31-32), 동시에 전인적 건강 내지 총체적 건강(holistic health, wholistic health, whole person health, total health, complete wellbeing)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삶의 질, 행복, 보편적 복지(wellbeing) 등과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송혜림, 2005).

넘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적 관점의 강화 및 건강가정 연구의 활성화 과정은 곧 가정을 둘러싼 거시체계 및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 및 연계된다는 차원에서 실천성의 또 다른 요소인 가정정책에 주목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복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차원의 것이므로, 복지에 대한 관심은 곧 행정·제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직결되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 역시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맥락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과학 연구자들은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정책아젠다 개발, 전달체계의 운영, 관련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이라는 보다 실천적 연구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부각시키는 한 방향이,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의 구체화와 가시화, 전달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 양성 및 배출 등이라면, 또 다른 한 방향은 바로 정책적 연구라고 할 것이다. 가정생활은 어제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일상성의 핵심인 까닭에 일상생활에서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를 추출하며, 이러한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다양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지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와 환경, 국가정부의 정책수립 방향성 역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의 결합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송혜림, 2008a). 실천성의 한 측면이 사회 기여 라는 차원에서도 가정정책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정영금, 2007).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여도를 부각시키며, 결과적으로는 국가제도적 정책을 통해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건강성 증진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생활과학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정립하고 위상을 견고히 하며 대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통합성’과 ‘실천성’에 주목하여, 보다 다양한 요소와 내용을 통해 이 개념에 접근함으로써 생활과학의 또다른 도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합성과 관련된 논의를 발전시켜, 연구의 대상·연구의 관점과 방법론 그리고 연구 결과의 적용 이라는 차원에서 Turkki(2007)가 제시한 모델 그리고 그동안 가정학, 생활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검토해 온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과학이 다학제적 접근에 따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여러 기초학문의 토대 위에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야흐로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통합적 학문인 생활과학이 가정과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치 있는 학문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통합성의 차원에서 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총체적 관점에 따라,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을 모색하여 생활과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철학, 생활양식, 생활문화, 삶의 질 등과 같은 주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실천성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먼저 실천성의 요소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가정복지와 건강가정 그리고 가정정책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문인력의 양성, 가정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 현장의 설치와 운영 등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어떻게 체계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결국 통합성과 실천성은 각각 분리된 개별적 특성이 아니라 또 다시 연계되고 융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가정복지나 건강가정 혹은 가정정책의 경우, 그 자체로 실천적인 요소를 함축하면서도 동시에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과학의 하위 연구분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향성이 바로 복지,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의식주생활과 인간발달, 가족관계, 생활자원의 관리와 가계경제 등 생활과학의 각 하위 연구분야와 그 주제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은 건강한 가정생활이며, 개인과 가정, 사회의 복지 증진이고 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각 학위 학문분과별로 전문화된 내용을 발전시키면서도 결국에는 건강이나 복지 혹은 삶의 질이라는 지점으로 회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정복지나 건강가정은 그 자체로 생활과학의 실천성과 동시에 통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은 하나의 체계이며, 이를 구성하는 하위체계들은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지향성을 갖고 통합되어 있는데, 바로 그 공통의 지향성이 삶의 질, 복지 그리고 건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의식주생활에서의 질적인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가족관계나 인간발달에서의 건강성은 무엇인지, 생활자원관리나 가계경제의 복지는 무엇인지 등이 심층적으로 연구되면서 동시에 그 결과가 가정복지 혹은 건강가정이라는 지점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정정책 역시 개인 혹은 가정생활의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 기초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천성과 통합성 모두를 견지해야 적실한 가정정책 연구가 가능하며 (송혜림, 2008a),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마련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주제들은 최근 들어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가정정책의 아젠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과학의 통합성과 실천성을 연계시키면서 상생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생활과학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학문으로 견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은 생활과학의 핵심 연구주제인 가족, 가정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형도 달라질 것이다. 생활과학은 이를 '생활과학적 관점'에서 포착하고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가정생활에 놓여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술,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도덕감 등 생애 초기부터 가정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가치들이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체득한 이러한 가치들은 곧 사회로 연계되는 까닭에 사회문제와 가정문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인식, 가족이기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해치지만 결국 가정에서 체득한 협동과 이타성, 약자에 대한 보호, 자발적 돌봄의 정도가 그 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수준과 삶의 질 그리고 성숙함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경험(송혜림, 2008b)을 사회로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한 미래 세대를 출산하고 돌보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곧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이슈인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정에 대한 재조망으로 연계될 수 있다. 고도로 전문화·다양화·분업화·차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그가 종사하지 않는 다른 삶의 영역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고 이로써 익명화와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통해 사회·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데(김성권, 2004:154; 167), 이런 점에서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근간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서로 협조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성향, 다른 사람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성향, 이런 성향을 낳는 문화적 가치 및 태도, 개인을 사회적 관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며, 공동이익을 강하게 의식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타심, 도덕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인데(이정전, 2003:181-184), 바로 가정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을 상호적으로 교환하고 축적하는 생활의 단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송혜림, 2007 재인용). 따라서 생활과학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정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는 단지 가정이 중요하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가정과 관련된 현상, 둘러싼 환경에

접근하고 이를 공적인 이슈로 부각시킴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저출산, 돌봄의 공백, 일-가정의 불균형 등과 같은 현상을 포착하여 문제 제기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 건강성 향상 그리고 가정정책의 아젠다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상술한 바, 생활과학의 통합성 논의에서 강조한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생산, 경쟁, 물질주의, 개발, 효율, 진보, 성장, 경제적 합리성, 노동을 추구해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금융위기, 확대되는 국가 간 계층간 격차, 사회의 갈등과 반목, 인간에 대한 불신과 소외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돌봄, 살림, 보살핌, 나눔, 사회적 책임, 더불어 삶, 인간관계, 여가, 유대 등이 보다 소중하게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가정 생활 중심적인 사고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생활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생활표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이기영, 2008).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가 생활과학 분야의 수월성을 인정하고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확산하고 더욱 큰 응집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과학 연구자 간 소통 체계를 보다 확고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활과학 관련 연구자들이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인바, 이 경우 통합성과 실천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공유, 학문적 연대감 구축, 시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소재의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개발 및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혜원(1980). 가정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18(2), 57-62.
- 2) 공인숙 외(1996).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3) 김향아·유태명(1995).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과 그 역사적·철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18.
- 4) 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73-183.
- 5) 문숙재(1999). 생활과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영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6) 송혜림(2005). 생활과학에서 ‘건강’이라는 코드의 재해석과 전망. 대한가정학회 제5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7) 송혜림(2007). 생활과학의 발전전략 - 지속가능한 생활과학, 도전과 비전. 대한가정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8) 송혜림(2008a). 통합적 가정정책 - 선언과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9) 송혜림(2008b). 변화하는 가정생활과 복지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10) 유영주·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I. 대한가정학회지 34(3), 1-8.
- 11) 유영주·강완숙(1999).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시론 II -통합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37(12), 179-192.
- 12) 유태명(1996). 새로운 가정학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기존 패러다임의 비판적 검토. 대한가정학회 제 49차 춘계학술대회 기초강연.
- 13) 이기영(2008). 지나간 50년, 앞으로의 50년 -미래지향적 생활과학의 발전전략.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14) 이기춘·박정희·권훈정·김난도(1999). 정보화·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과학의 새로운 지평. 대한가정학회지 37(7), 1-16.
- 15) 이정연(1994). 가정학의 메타이론 - 인간생태학적 접근의 타당성. 대한가정학회지 32(3), 1-10.
- 16) 정영금(2007). 가정관리학 분야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17) 조혜정(2006). 생활과학,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성: 식민지적 근대화와 ‘일상’을 지운 학문을 넘어서기. 대한가정학회지 44(8), 143- 150.
- 18) Turkki, K.(2007). Home Economics as a Discipline and Science. Research Programme including frameworks and references.
- 19) Vincenti, V. & Turkki, K.(2008). Celebrating the Past: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History of IFHE and the Home Economics Profession. IFHE XXI. World Congress Proceedings.
- 20) V.Schweitzer(1991).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ulmer Verlag.

- 투 고 일 : 2010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4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12일